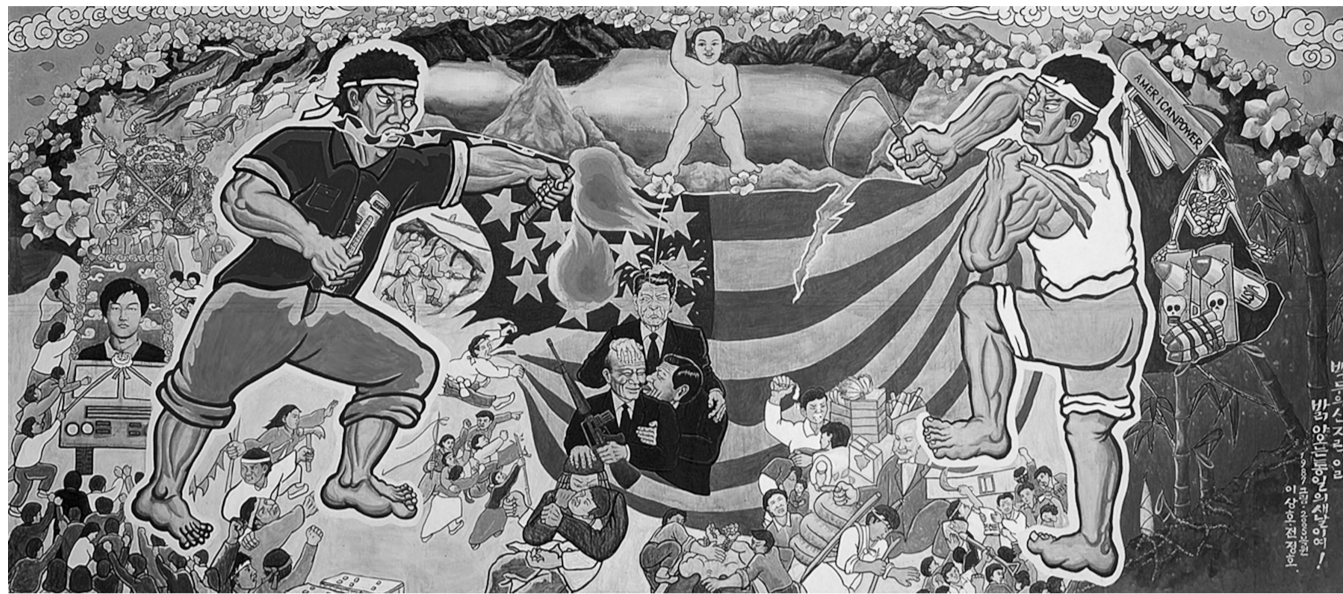


제1호 국가보안법 구속 '민중미술' 그림 독일 간다

이상호·전정호 '백두 산자락...' 2인전 '저항으로서 민중미술' 7월까지 베를린 현지 갤러리 '분단 경험 동질적 아픔 공유'



이상호·전정호 2005년 작 '백두의 산자락 아래 밝아오는 통일의 새날이여!'.

광주·전남 대표 민중미술 화백 이상호, 전정호가 그린 걸개그림 '백두의 산자락 아래 밝아오는 통일의 새날이여!'는 1987년 예술인이 처음 국가보안법 구속으로 이어진 기념비적인 작품이다.

대학 선후배 사이였던 이들은 당시 6월항쟁 정국 속에서 반정권 색채가 강한 걸개그림을 완성, 광주·서울·제주 등에서 순회전을 이어가던 중이었다. 길이 120cm에 이르는 화폭 속에는 폭압적인 군사정권에 분노한 민중의 모습과 함께 이한열 열사의 노제 현장, 민중의 상징 대나무, 찢긴 성조기, 희화화된 전두환과 노태우·레이건(당시 미국 대통령) 등 역사의 소용돌이 속 모두가 자주민주주의를 열망했던 1987년의 모습이 펼쳐져 있다.

그림은 서울 인사동 한 갤러리에 걸려 전시됐지만, 강렬한 그림체 때문에 곧바로 인근 종로경찰서 표적이 됐다. 제주도

전시를 위해 그림을 옮기던 중 무단 탈취됐고, 두 화백은 수배령이 떨어진 후 검거됐다. 그들은 서울 남영동 대공본실로 끌려가 혹독한 폭행과 고문에 시달렸다. 예술인 첫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 사례였다. 시간이 흘러 두 사람은 '예술인의 표현의 자유'라는 상징적 의미가 큰 이 작품을 수소문했지만, 그림은 이적표현물로 판결받아 소각됐다는 사실을 알았다. 기억을 더듬어 복원시킨 것이 바로 2005

년 작 '백두의 산자락 아래 밝아오는 통일의 새날이여!'다.

이 작품이 이번엔 독일 베를린으로 긴 여정을 앞두고 있다.

이상호·전정호 2인전 '저항으로서 민중미술'이 15일부터 7월 7일까지 베를린 현지에서 열리는 갤러리 '마인블라우 프로젝트raum(MEINBLAU Projektraum)'에서 열리는 가운데 출품작으로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번 전시는 독일Art5에

술협회 소속 유재현 총괄디렉터와 양림동에 자리한 포도나무아트스페이스의 정현주 관장이 기획한 자리다. 특히 민족문제연구소 광주지부, 베를린 페퍼베르크재단 등 민간후원으로만 진행돼 그 의미를 더한다.

전시에는 '백두의 산자락 아래 밝아오는 통일의 새날이여!'를 중심으로 1층과 2층에 두 작가의 시대별 주요 작업이 20여점이 걸린다. 이상호 작가의 경우 포송

줄에 묵인 친일파 인사와 5월 학살자의 초상을 기록한 '역사의 심판에는 시효가 없다' 등 기존 주요작품과 함께 역사의식과 연관된 신작을 선보일 예정이다. 전정호 작가는 대표 판화작품과 함께 국가폭력으로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얀마 군부 쿠데타, 기후위기 등을 주제로 한 신작을 선보인다.

특히 전시가 진행되는 베를린은 과거 동독과 서독으로 분단된 중심지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전시를 기획한 유재현 디렉터는 "베를린은 과거 분단을 경험한 도시로, 한국과 비슷한 역사적 맥락을 공유하고 있다"며 "분단을 경험했다는 측면에서 시민정서가 정치적 이슈에 대한 문화예술의 이해도가 높다. 무엇보다 전쟁을 반대하고 궁극적인 평화를 꿈꾼다는 점이 광주의 민중미술 정서와 맞닿아 있다"고 말했다.

이상호 작가와 전정호 작가는 "우리는 아직 극복하지 못한 분단의 아픔을 이겨낸 독일 베를린에서 전시하게 돼 뜻깊다"며 "독일 시민들이 평화로 이어지는 광주정신의 궁극적인 합의와 한반도 통일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도선인 기자 sunin.do@jnilbo.com



싱그러운 초여름 정취

"도심 속 정원으로 떠나볼까"

'초록초록 ACC 산책' 운영 7월 13일까지 매주 수·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찾아온 초여름을 만끽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이 오는 22일부터 7월 13일까지 '초록초록 ACC 산책'을 운영한다.

'초록초록 ACC'는 ACC에서 전문 해설사와 함께 야외에 피어난 꽃과 식물을 따라 산책하며 싱그러운 초여름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계절 투어 프로그램으로 기존 정기 투어 프로그램인 공간, 건축, 공공미술 투어와는 별개로 운영된다.

참가자는 투어 해설사와 함께 녹음이 우거진 ACC를 걸으며 다양한 꽃과 식물에 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야외 산책 투어에서 만나는 장미와 배롱나무, 화화나무 등 ACC 곳곳에 피어있는 여름철 꽃과 수목들을 살펴보고 쉽고 재미난 이야기도 듣는다.

특히 올해 야외 산책 투어는 꽃 개화시기 및 수종에 따라 다른 동선으로 운영되는 것이 특징이다. 먼저 오는 22일부터 6월 8일까지는 어린이 문화원 상상마당 중심으로 민주평화교류원까지, 오는 6월 12일부터 7월 13일까지는 아시아문화광장 지하녹지점 중심으로 열린마당까지 식재된 수목을 둘러보게 된다.

산책 후에는 '내 방 안 <초록초록 ACC> 들어가기'를 주제로 초록을 담은 체험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격주로 다르게 운영되는 프로그램은 식물을 친환경 화분에 심은 뒤 아시아 전통 매듭법을 활용해 걸이 화분(행잉 플랜트)을 완성하는 체험과 ACC 내 식재된 꽃과 소재 식물을 조합한 초록 다발 만들기 체험으로 구성됐다.

야외 산책 투어와 체험 프로그램은 총 120분 정도 소요된다. 매주 수요일 오후 5시,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오후 5시에 각각 시작하며, 총 24회 운영한다.

'초록초록 ACC 산책' 참가비는 5000원으로, ACC 누리집(www.acc.go.kr)에서 참가자를 선착순 모집한다. 1회당 참여인원은 20명으로, 8세 이상 참여할 수 있다. 14일 첫 회 차 모집을 시작으로 2주마다 순차별로 참가자를 모집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ACC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강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은 "'초록초록 ACC 산책'을 통해 문화전당에 찾아온 여름을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즐기고 좋은 추억을 만드시길 바란다"면서 "도심 속 정원을 둘러보며 잠시 여행을 떠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선인 기자

"발레로 구현한 광주의 고통과 연대의 몸짓"

광주시립발레단 5·18극 '디바인' 24·25일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광주시립발레단은 브랜드 공연 'DIVINE(디바인)'을 오는 24일 오후 7시 30분, 25일 오후 3시·7시 총 3회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선보인다. 디바인은 5·18을 소재로 한 컨템포러리 발레(클래식을 벗어난 자유로운 형태의 현대발레) 장르로 지난해 7월 첫 공연을 선보인 이후 무용계와 평단의 큰 찬사를 받았다.

'Divine'은 '신성한, 숭고한, 천상의'란 뜻으로 번역되는 단어로 5·18 영령들과 그 가족들 그리고 우리 광주시민 모두를 아우르는 이미지로 차용된 작품의 제목이다. 디바인은 분노, 고통, 희생, 용서, 치유의 과정을 원초적 몸짓으로 펼쳐나간다.

디바인은 총 3장으로 구성돼 75분 동안 쉽 없이 단원들의 춤사위가 무대를 가득 채운다. 50여명의 대규모 출연진은 침묵을 깨고 탄식과 애도의 몸짓을 펼치고, 자유를 향한 절규를 담은 몸부림을 펼치기도 한다. 차가운 조명 테두리와 뜨거운 젓가



광주시립발레단은 5·18민주화운동을 소재로 한 컨템포러리 발레 '디바인'을 오는 24일과 25일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선보인다. 광주예술의전당 제공

루 몽치가 교차하고 적군과 아군의 구분을 상실한 몸들이 순백의 존재들로 대체되면서 억압과 고통이 구원으로 승화된다.

디바인은 지난해 제30회 월간 '몸' 주관 무용예술상 작품상을 수상, 평단의 많은 호평을 받았다. 발레가 클래식 레퍼토리의 반복이 아니라 동시대 시대정신을 드러내는 예술 작업이 될 수 있음을 증명했

다. 특히 광주시립발레단의 차별화된 창작 레퍼토리 확립에서 이정표가 될 만한 작품이다.

티켓은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으로 광주예술의전당 홈페이지와 티켓링크를 통해 예매할 수 있다. 공연은 7세 이상 관람(초등학생 이상) 가능하다.

도선인 기자

동구로 떠나는 취향여행 '덕질살롱' 참여자 모집

20일까지 덕질가이드

광주동구문화관광재단은 지역 생활인구 유입 증대를 위해 취향여행 플랫폼 '덕질살롱'을 운영, 참여자 '덕질가이드(코디네이터)'를 오는 20일까지 모집한다.

'덕질'이란 흔히 접하기 힘든 특별한 취향, 주제, 문화에 시간과 정성을 쏟는 활동을 말한다.

'덕질살롱'은 '덕질'을 매개로 퇴근, 하교 후 광주에서 즐기는 자유로운 취미

여행을 콘셉트로 기획됐다. 참여자들은 특별한 취향을 주제로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긴다.

'덕질살롱'에 참여할 덕질가이드는 특정 분야 덕후로서 다양한 주제로 덕질 모임을 기획해 주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선발된 덕질가이드는 직접 덕질 주제 및 활동 내용을 기획하고 6월부터 11월까지 최대 24회 모임을 운영해야 한다.

사람 덕질, 먹는 덕질, 모으는 덕질, 문화예술 덕질, 스포츠 덕질, 하나뿐인 덕

질, 하나뿐인 모임 등 주제는 다양하다.

덕질가이드 모집은 오는 20일까지이며 신청방법 및 자세한 내용은 동구문화관광재단 홈페이지(http://gdctf.or.kr) 또는 청년문화허브 블로그(https://blog.naver.com/culturehub02/223413171272)에서 확인 가능하다.

본 사업은 광주동구문화관광재단, 광주시 동구, 한국관광공사에서 주관하며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의 2024 지역관광추진조직(DMO) 공모에 최종 선정된 사업이다.

도선인 기자